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유선



부자인 남자에게 두 여자가 있었다. 두 여인은 재산이 많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다.

나의 역사이기도 하다. 데리 포드는 '행복 선택의 기술'에서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선택 결과"라고 말한다.

선택의 힘, 역사도 선택이다

듣하는 선택으로 성공하게 된다. 빙판의 여왕 김연아는 은반 위에서 음 악처럼 매끄럽다. 그런 그녀도 실수할 때가 있다.

지도자가 국가운명 좌우

조선시대 실학의 대가 정다산은 아무리 이익이 많아도 이로운 것이 아니면 선택 하지 않는다는 선택의 원칙을 주장했다.

지도자의 선택은 나라를 죽이고 살린다. 후삼국 시대 궁예, 견훤, 왕건의 역사는 힘, 지략, 민심 중 어느 것을 선택했는

된다. 접이며, 내가 선택한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점이다. 미당 서정주는 시집 '질마재 신화' 중 공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 외에 사실은 까지도 있었다고 한다.

에게 있다. 소위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데이비드 거겐)인 일관성, 소명의식, 설득력, 화합, 순발력, 유능한 참모진, 대중을 움직이는 능력 등이 계속 균형있게 발휘되어야 한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필립 체스터빌의 회화 '아들아, 지금 너의 선택이 네 인생을 결정한다'처럼 '지금 당신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글귀를 투표용지에 써넣으면 어떨까?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권영빈



요즘 경제학 관련 책 한 권을 읽고 있다.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 주말에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잠잠이 시간을 낸다.

받을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되기도 한다. 선물을 사람의 따뜻한 배려를 느끼면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심스럽게 읽어보게 된다.

연말 책 선물 어떻게?

다. 그러나 법대에 진학한 후 전공 공부를 시작한 이래 법학 관련 서적 이외에 다른 책을 가까이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되었다. 평소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보니 일 년에 서너 권을 읽기도 힘든 형편이다.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본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 든다.

'뇌물'을 '떡값'이라니...범죄 희석시키는 용어 쓰지 말자

최근 언론의 사회·정치면에는 '떡값 검찰', '떡값 검사', '삼성 떡값, 떡값이나 뇌물이나'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못한다. '뇌물'을 '뇌물'로 표현하지 않고 '떡값'이라고 표현할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사소한 문제로 희석시키는 '범죄 불감증'을 만들게 될 우려가 높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 지급합니다.

기고

조일환



광주·전남지역은 제조업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에 대한 의존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지역 건설산업이 호황을 누리면 지역경제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지방 건설산업 위기 해소방안은 없는가

를 견디지 못한채 부도 및 폐업이 예견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역 건설업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 선행돼야 한다. 또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등을 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공구분할 및 공동도급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금융권 '365일 코너' 24시간 운영 했으면

낮 시간에 은행업무를 보지 못하고 야간에 365일 코너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은행이 업무 마감 시간 뒤 운영하는 365일 코너의 경우 밤 10시까지 밖에 안되는 곳이 많다.

아서 자동화 기계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따라서 굳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자동화 코너를 24시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을 것 같다.

시설

무안공항 활로 백두산 직항로에서 찾아야

내년 5월부터 백두산 관광길이 열리며 지방공항들이 백두산 하늘 길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문을 연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충북 청주공항, 강원 양양공항, 제주공항 등 5개 지방공항이 백두산 직항로 운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개점휴업 상태인 '제 2의 양양공항'이 될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무안공항의 성공 관건은 여객 수요창출에 달려있다.

공무원 정년 연장 합의 설득력 없다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6급 이하 57세, 5급 이상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일원화하되 우선 6급 이하의 정년 연장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국회에 제정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비판여론에 밀려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 현실을 무시한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無等鼓

어려운 한자를 개척하는 문제는 중국 근대화의 일관된 주제였다. 작가 루쉰(魯迅)은 "한자가 없으면 중국은 멸망한다"며 한자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의 남방일보가 지난 11월 '한국이 한자를 통일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정말 가소롭다'며 한자 통일운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韓·中 문화전쟁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한국·일본·대만 등 3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한자 통일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실장>

없는 보도를 했다. 신재보는 '한국의 한 학자가 한국인들이 한자를 발명해 중국에 전승했다고 주장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도 덧붙이며 독자를 자극했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6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총 부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동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제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